

이 아픔, 이 기억 결코 지울수 없다

광주여성재단 '마르지 않는 눈물:나비의 꿈'展

9월 30일까지... '위안부' 할머니 전시회
직접 그린 그림·지역작가 5명 작품 전시
앙굴렘만화페스티벌 상영 애니메이션
해남 공정엽 할머니 삶 담은 다큐 상영도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한 장면.

'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파요. 그 때 내 나이 열 여섯살.' 내레이션과 함께 잔잔한 기타 선율이 흐르고 한 소녀가 콧노래를 부르며 등장한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동네 오빠를 보고 '발그레' 얼굴이 붉어지는 소녀. 하지만 꿈꿨던 그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고,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9월 광주여성재단 8층 여성전시관 '마르지 않는 눈물; 나비의 꿈'전에서 만난 애니메이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16분)는 깊은 울림을 준다. 지난 2014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41회 국제 앙굴렘 만화페스티벌'에서 상영돼 전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작품으로, '위안부' 문제를 처음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엮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이 최근 공식 발족했지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망은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이번 전시는 더욱 뜻깊다.

'마르지 않는 눈물'전에는 지역 작가 5명이 참여했고, 다양한 영상물도 상영중이다.

성유진 작가의 '나의 살던 고향은'은 작가가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인 담양의 곽예남 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그린 작품이다. 아흔의 나이에 폐암 4기, 치매 증상까지 앓고 있는 할머니를 만난 그녀는 '할머니가 마주한 기억'을 담아내고 싶었고, 할머니의 고향 모습을 상상해 그렸다. 그녀의 작품 바로 옆에는 할머니가 직접 그린 작품도 함께 걸려 있다. 성 작가는 담양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 영상 작품 '안양골'도 제작했다.

이성웅 작가의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스테인레스로 제작

한 소녀상의 모습과 앞에 놓인 하얀 의자가 인상적이다. 작가는 할머니들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싶었고, 관객들이 할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직접 적어 부착하도록 했다. '항상 옆에 있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용서할 수 있는 분은 그 피해자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분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지 말아야지요.' 관객들이 나비 모양의 종이에 소중한 글귀들을 담았다.

주미희 작가의 '노랑 나비'는 멀리서 보면 거미줄에 걸려 있는 나비의 모습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양한 모습의 인물 군상들이다. 작가는 '어두운 과거 속에서 한 마리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어하는 그 분들의 염원을 기리는 마음'을 담았다. 그밖에 김대옥, 이혜리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함께 선보이는 다큐 '오메 반갑소'는 해남의 '위안부' 공적업 할머니의 삶을 담은 작품이다.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환한 웃음을 터트리는 할머니,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해남 나비' 가족들과의 즐거운 여행 모습을 보면 마음이 쉼해진다. 할머니는 전시가 진행중이던 지난 5월 16일 9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2006년 미국에서 열린 한 증언 집회에서 미국 여대생이 질문한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요?", "나의 증언을 경청해주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시회에 들려 이제 우리가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전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광주 남구청 갤러리에서 이어진다. 관람 시간 월~금(오전 10시~오후 5시), 목요일(오전 10시~오후 8시), 토·일·공휴일 휴무. 문의 062-670-05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위안부' 피해자!, 우리가 이제 함께 해요 광주여성재단 11일 워크숍

광주여성재단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우리가 이제 함께 해요'를 주제로 현안 워크숍을 갖는다.

현안 워크숍은 매년 지역 여성계의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지역 여성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여성전시관 기획전을 통해 역사적인 흔적과 현재의 삶을 알게 된 시민문화운동가들이 함께 모여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전쟁 중 여성 성폭력과 인권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행사다.

조영임(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씨가 좌장을 맡고 윤미향(한국정신대 대책위원회 상임 대표)씨가 '나비의 꿈, 반드시 해방을'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선 이명숙 '해남 나비' 대표와 담양 곽예남 할머니 가족 이관로씨, 김승애(담양 평화의 소녀상위원회 집행위원장), 배진하(광주시 남구의회 의원), 이국연(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윤정(조선대 객원교수), 채숙희(광주여성성전화 한울지기 소장),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 정책위원장)씨 등이 함께한다. 문의 062-670-0532. /김미은기자 me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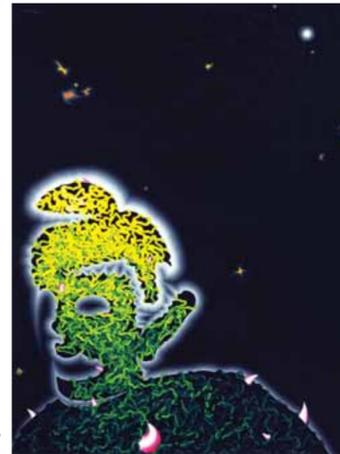
이성웅 작가가 제작한 '잊혀지지 않는 기억' 작품. 관람객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달려 있다.



광주·전남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 곽예남 할머니가 그린 그림.

'부유하는 욕망' 신창운 개인전

11~17일 DS갤러리



▶'욕망'

인간 심연 속 욕망을 탐구해 온 신창운 작가가 11~17일 DS갤러리에서 '부유하는 욕망'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우주공간에 부유하듯 떠다니는 인간 욕망의 다양한 아이콘으로 담은 최강작 '욕망'시리즈를 선보인다.

작품 속 어두운 우주에는 욕망을 상징하는 행성이 등장한다. 행성은 한자나 유명 브랜드 이니셜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변형해 형상화했다.

작가는 헬리콥터 창자와도 같은 구불구불하게 뒤엉킨 선을 사용해 꿈틀거리는 욕망덩어리를 묘사한다. 행성은 빨이 돌아있기도 하고, 주위에는 전투기, 십

자가, 부처, 핵연료 등 욕망 상징물이 부유하듯 떠다닌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신 작가는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인류학 석·박사과정을 밟았다. 지난 2010년 인도 유학을 마친 후 인간 심연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신씨는 하정웅 청년작가상, 광주미술상,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 청년작가상, 신세계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시립미술관 '2016 올해의 청년작가'로 선정돼 지난 5월 상록전시관에서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문의 062-233-391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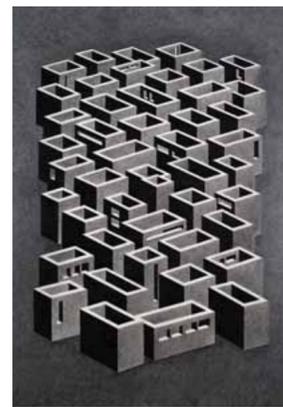
로터스갤러리 26일까지 윤준영 개인전

2016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윤준영 작가가 '다섯번째 계절'을 주제로 26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건축물을 미로처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체계 속에서 개인들이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는 상황을 비판했다. 주제는 존재하지 않는 '다섯번째 계절'.

작품 '이방인의 집'은 따로따로 서있는 집들을 표현했다. 창문이 난 벽만 있을 뿐 지붕도, 내부 집기도 없다. 고독, 상실 등 무거운 분위기가 감돈다.

전남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윤씨는 2013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청년작가 전시공모 선정, 2015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센터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문의 062-383-0108. /김용희기자 kimyh@



'이방인의 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8·15 광복절 기념 제2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

2016년 8월 15일(월)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 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 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광주일보사·마라톤세상**
주관 **화순군육상협회·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보훈청